

구역 예배 교안 2024.09.01

1. 신앙고백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2. 찬양과 경배	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3. 기도	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2번 찬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
4. 말씀	본문: 마가복음 8장 22-26절 제목: 다시 안수하신 예수님.
5. 질문과 나눔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나 결단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6. 치유와 회복의 시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2) 치유집중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 3) 문제를 맡기며 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나눈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4)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5)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6)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7)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
7. 공지사항	
8. 주기도문	

제목: 다시 안수하신 예수님. 본문: 막8:22-26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안수하여 치유하시는데, 병자가 한 번에 낫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혹은 말씀 만으로도 병자를 고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단번에 고치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날 따라 능력이 부족하셨을까요? 아니면 벅새다 사람들과 맹인의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자의 병이 한 번에 낫지 않고 점진적으로 낫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질병 문제로, 진로 문제로, 사업 문제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도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며, 그 고통에 공감 하시며,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단번에 해결되었다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쉽게 해결된 문제는 쉽게 주님을 떠나 버립니다. 반면에 점진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 성도는 함부로 낙심하지 않게 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고전12:3]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당장 자기 소원만 해결해 주길 바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길 바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진적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구원 역사, 점진적으로 이루시는 은혜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빌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미래형으로 말할까요? 왜 주님의 구원 사역이 단번에 끝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일까요? 성도에게는 칭의와 더불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죄 용서와 새 생명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악한 습성은 단지 무죄선언 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 용서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죄와 평생 싸워야 합니다.

물론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맹인에게 두 번 안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거듭 은혜베푸시며, 위로하시며, 죄와 싸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점진적 은혜를 이해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하는 자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랑진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구역 모임 교안 2024.09.01

1. 아이스 브레이크	<p>*눈치게임: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예:5명이 모였으면 4번까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거나 번호를 외치며 손뼉을 치는 게임입니다.</p> <p>*별칭 해당자: 마지막까지 번호를 외치지 못하거나 일어나지 못한 사람, 동시에 같이 외치거나 함께 일어나는 사람</p>
2.찬양과 경배	<p>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p>
3.기도 (통성으로)	<p>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 (2번 찬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p>
4.은혜의 나눔	<p>한 주 동안 은혜 받은 내용이나 응답받은 기도제목에 대해서 구역 식구들 앞에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p>
5.말씀의 나눔	<p>본문: 마가복음 8장 22-26절 제목: 다시 안수하신 예수님.</p>
6.질문과 나눔	<p>1) 나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해결된 경험을 나눠봅시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유익은 무엇입니까? 2) 내 삶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주님의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3) 기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느낀 점을 나눠봅시다.</p>
7.증거	<p>1) 각 태신자와의 관계맺기 현황과 기도제목 나눔. 2)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도록 기도. 3) 구역 결석자, 구역모임 결석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p>
8.치유와 회복의 시간	<p>1)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2) 치유집중기도: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 3) 문제를 맡기며 : 서로 나눔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4)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5)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6)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7)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p>
9.광고 및 주기도문	

제목: 다시 안수하신 예수님. 본문: 막8:22-26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안수하여 치유하시는데, 병자가 한 번에 낫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혹은 말씀 만으로도 병자를 고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단번에 고치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날 따라 능력이 부족하셨을까요? 아니면 벅새다 사람들과 맹인의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자의 병이 한 번에 낫지 않고 점진적으로 낫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질병 문제로, 진로 문제로, 사업 문제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도 아무것도 안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며, 그 고통에 공감하시며,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단번에 해결되었다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쉽게 해결된 문제는 쉽게 주님을 떠나 버립니다. 반면에 점진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 성도는 함부로 낙심하지 않게 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고전12:3]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당장 자기 소원만 해결해 주길 바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으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길 바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진적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구원 역사, 점진적으로 이루시는 은혜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빌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미래형으로 말할까요? 왜 주님의 구원 사역이 단번에 끝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일까요? 성도에게는 칭의와 더불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죄 용서와 새 생명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악한 습성은 단지 무죄선언 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 용서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죄와 평생 싸워야 합니다.

물론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맹인에게 두 번 안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거듭 은혜베푸시며, 위로하시며, 죄와 싸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점진적 은혜를 이해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하는 자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랑진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이런 은혜로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Chords: D, Dmaj⁷, Gmaj⁷, Em, G, A⁷, Dmaj⁷, A⁷, D, Dmaj⁷, Gmaj⁷, Em, G, A⁷, G/D, D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 받으셨네 -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 하며 섬기 리 -

449

예수 따라가며

(통일 377)

J. H. Sammis, 1887
 보통으로

When we walk with the Lord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롬 2:10)

제자의 도리
 TRUST AND OBEY: 6.6.9.D.REF.
 W. H. Doane, 1887

Chords: F, C7, F, C, F, Bb, F, C, F, C7, F, C, F, Bb, F, C7, F, C, D, Gm, C, F, C7, F

1.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 하 면 우 리 행 할 길
 2. 해를 당하거 나 복우 리 순고 생 할 때 주 가 위 상 급
 3. 남의 리를 받 을 입 지 고 슬 품 위 로 하 리 면 주 가 리 모 시
 4. 주를 함 입 지 고 슬 품 위 로 하 리 면 주 가 리 모 시
 5. 주를 함 입 지 고 슬 품 위 로 하 리 면 주 가 리 모 시

환 하시 겠 네 주 를 의 지 하 며 순 중 하 는 자
 주 시 시 내 주 를 의 지 하 며 순 중 하 는 자
 념 치 아 가 세 주 주 를 의 지 하 며 순 중 하 는 자
 살 아 네 세 주 주 를 의 지 하 며 순 중 하 는 자

후렴
 를 주 가 함 께 하 시 리 라 의 지 하 고 순 중
 를 주 가 함 께 하 시 리 라 의 지 하 고 순 중
 를 주 가 함 께 하 시 리 라 의 지 하 고 순 중

하 는 길 은 예 수 안 에 즐 겁 고 복 된 길 이 로 다